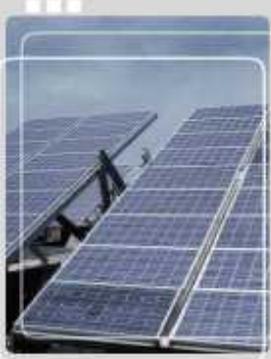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최근 일본 제조업 현황 / 2

II. 정부 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 5

III.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 7

IV.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평가 / 22

V.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23

요 약

- 2011년 이후 일본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엔고, 전력 부족, 높은 법인세, FTA 지연, 노동규제, 환경규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중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음
- 엔고와 관련해서는 2012년 11월 이후 달러당 79엔대에서 2013년 3월 25일 현재 94.82엔까지 20% 정도 엔저가 진행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엔고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해소되고 있으나 여타 5개 항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일본 기업의 경영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은 자민당 아베신조 총재가 신임 총리로 취임하면서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일컬어지는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아베노믹스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정책으로 특히 무제한의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재생을 지향하고 있음.
- 금융완화정책은 2012년 4분기부터 엔저로 전환되면서 주요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경제 회복 기조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 전략, 즉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에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은 금융완화, 제조업 자금지원, 세금인하 등 금융·세제면의 지원 정책을 골자로 하여 이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아시아거점화 입지 추진사업 및 U턴기업 지원 시책 등이 패키지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정부는 이 같은 경제 재생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인해 2013년도 실질 GDP 2% 상승, 60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민간 경제기관에서도 2013년 GDP 성장률은 2% 수준을 달성, 디플레이션 탈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가 많음
- 다만 재정 및 금융 확장정책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속하기가 어려운데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아울러 성장정책은 '13년 6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
- 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재생, 기업 경쟁력 강화전략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를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한일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경기 회복이 실현될 경우 일본 소비시장 활성화로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우리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1

최근 일본 제조업 현황

□ 6중고와 일본 제조업의 현주소

- 2011년 이후 일본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엔고, 전력부족, 높은 법인세, 지연되는 FTA, 노동규제, 환경규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중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음.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및 일본자동차공업회 등 각 경제단체에서는 최근 엔고 완화 흐름에도 장기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엔고상황이라며 6중고가 일본 제조업 공동화를 진행시키고 이로 인해 일본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2013.1.9)

① 엔고

- 2010년 중반부터 가속화 된 엔고현상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2011년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엔화가 수차례 역대 최고치를 갱신
 - * '08.1월) 111.6엔/달러 → '10.1) 93.1엔 → '11.10) 75.32엔
- 2012년 11월 이후 엔고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13년3월25일기준) 1달러당 94.82엔 수준까지 엔약세가 진행됨

<'12년 11월이후 엔화환율 추이>

일자	'12.11.16	'12.12.17	'13.3.25
환율	81.14엔	84.02엔	94.82엔
주요요인	중의원 해산발표	총선 직후	현재

② 높은 법인세

- 12년만에 법인세 인하가 결정되어 2013년도(2013년4월 이후)부터 적용 될 예정
 - 일본 법인소득세 실효세율은 40.69%에서 35.64%로 5.05% 인하됨

- 그러나, 금년부터 향후 3년간 확정세액의 10%를 복구세금 (지진 재해 복구 특별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법인세 인하전과 크게 차이가 없게 됨
- 특히, 법인세가 30% 전후인 유럽, 25% 이하인 아시아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 OECD 평균 : 25.5%

<법인소득과세 실효세율 비교>



* 자료원 : 일본 재무성

③ 노동규제

- '08년부터 파견근로자의 해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11년 12월 노동자파견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2년 10월부터 시행.
 - 수요가 있을 때만 단기계약(30일이내)을 체결하여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제 강화
- '11년 8월 도요타자동차의 이지치(伊地知) 전무는 노동비용을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할시 한국의 2배가 소요된다고 주장
- * OECD 고용보호지수(상용고용)의 경우 일본은 2.05로 주요 7개 선진국 평균 1.73보다 높음. (OECD 2008년)

④ 환경규제

- 교토의정서에 따라 '08-12년 5년간 '90년대비 온실가스 8% 삭감을 달성한 것으로 추산 (목표는 6% 삭감)
 - 추가적인 배출량 삭감이 어려워 배출권 구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구입비용의 약 75%를 민간차원에서 부담
 - 산업계에서는 이미 약 6,000억 엔의 비용을 배출권 구입에 투자함
- 일본이 독자적으로 '20년까지 25%('90년대비)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향후 배출권 구입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⑤ FTA 지연

- 일본 외무성의 주요국 FTA비율 (총무역금액에서 FTA국과의 무역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르면 일본은 18.7%로 타국에 비해 낮은 상황
 - 한국 35.2%, 미국 38.3%, EU 31.5%, 호주 24.9%, 중국 19.4%
 -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2010), IMF Trade Statistic(2011.11)을 기초로 일본 외무성이 산출한 통계 (2012.4)
- 일본이 현재 참여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TPP 또한 농림수산물 주요 품목(쌀 등)의 관세 철폐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원만한 협상 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⑥ 전력부족

- 원전 정지(현재 50기중 2기만 가동)로 인해 원전가동비중은 재해전 29.5%에서 현재 1.4%수준으로 낮아졌음.
 - 화력발전을 위한 화석연료수입이 늘어나면서 전력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도쿄전력 기업용 평균 17% 인상

2 정부 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가. 총리실 주도의 강력한 추진 조직 신설

□ 경제재정자문회의

-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각 부처 장관 및 일본은행 총재, 경영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 및 예산 방침을 결정

☞ 경제재정자문회의 : 일본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요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설치근거 : 내각부설치법 제18조)

- 이는 총리관저 주도의 경제운영을 의미하며, 정부와 일본은행간의 긴밀한 협력효과의 기대도 가능
- ‘01-’08년 고이즈미 정권에서는 동 회의를 통해 공공사업비 및 사회보장비 삭감 등 각 부처의 저항이 강한 정책이 추진된바 있음.

□ 경제재생본부

-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결정된 거시정책에 맞춘 미시정책을 담당
- 주요 경제정책 및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
- 본부내에 설치된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산업 및 TPP 정책 등이 논의됨.
- 1월 8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긴급경제대책 방향을 검토 및 확인, 15일 내각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음.

* 긴급경제대책 관련 경비 : 10.3조엔 (사업규모는 약 20조엔 전망)

<일본 경제재생본부 및 경제재정자문회의 구성>

일본경제재생본부	
본부장	
아베신조 총리	
본부 담당 장관	
아마리 아키라 장관	
경제재생본부 사무국 * 총 46명 (경산성 12명, 재무성 7명, 내각부 7명)	
사무국장	스기타 카즈히로 (관방 부장관)
산업경쟁력 회의 멤버	
<p>니이나미 타게시(로손 사장), 사토 야스히로(미즈호 FG사장), 사카네 마사히로(코마츠 사장), 아키야마 사키에(사키 코퍼레이션 사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도레이 회장), 타케나카 헤이조(게이오대학 교수), 하시모토 카즈히토 (도쿄대학대학원교수), 하세가와 야스치카(다케다약품 사장), 미키타니 히로시(라쿠텐 사장)</p>	

경제재정자문회의	
의장	
아베신조 총리	
의원	
각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 장관)
	신도 요시타카 (총무성 장관)
	시게키 토시미츠 (경제산업성 장관)
일본 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민간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학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
	고바야시 요시미츠 (미츠비시케미컬홀딩스 사장)
	사사키 노리오 (도시바 사장)
	타카하시 스스무 (일본총합연구소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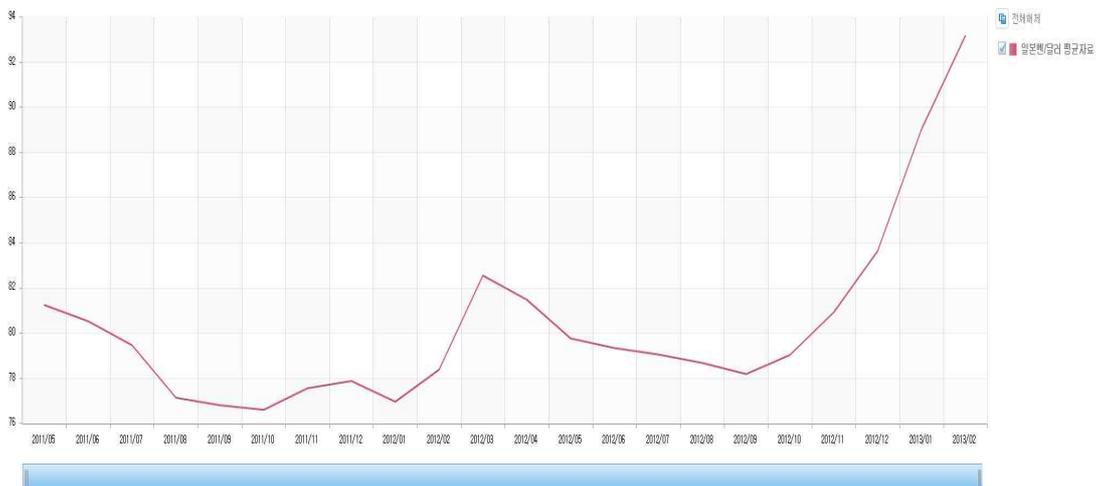
3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가. 금융·세계면의 지원 정책

□ 금융완화를 통한 엔약세 정책

- 아베총리는 2% 물가목표를 도입, 목표달성까지 무제한 금융완화를 진행한다는 계획
 - 일본은행이 2% 물가목표를 정하고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경기회복 및 고용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함.
- 이에 따라 노다 전총리의 중의원 해산 발표('12.11.14) 이후 2개월간 엔화 약 12% 하락, 닛케이주가 26% 상승
 - 1월 들어 추가적인 엔화약세는 수입자재 가격상승으로 일본경제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음.
- * 현재 환율은 꽤 좋은 상황. 그러나 1달러당 엔화가 세자리수가 되면 수입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13.2월,경제재생본부 아마리 아키라 장관)

<엔화 환율 추이 (엔/달러)>



* 주 : 평균환율 기준
* 자료원 : 한국은행

□ 제조업 자금 지원 정책 (검토단계)

- (목적) 일본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조엔의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반도체 등 제조기업들이 보유자금을 늘려 빠르게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근거) 동 제도는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제정하고자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법(가칭)>을 기반으로 하게 될 예정
- (지원 흐름) 정부 재정투·융자기관과 민간 리스기업에서 1:1 출자를 통한 SPC설립 → SPC는 A기업으로부터 공장·설비 매입 → SPC와 A기업간 리스계약 → A기업은 SPC에 리스료 지불을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공장 및 설비 사용
 - ☞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법인
 - * 정부 재정투융자 기관 :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담당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을 만들 것인지는 아직 미정
- (기대 효과) 기업은 공장 및 설비를 SPC에 매각한 대금으로 신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자산가격의 변동 부담을 덜 수 있음.

□ 세금인하 정책 (검토단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공제 검토)

- 현재 일본의 <연구개발 감세>의 경우 기업 연구개발비의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상한선은 해당기업 법인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 상한선을 현재 법인세의 20%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일본의 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3.7%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
 - 그럼에도 한국의 IT기술이 급발전하고, 중국도 '20년까지 GDP대비 2.5%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등 연구개발이 세계적으로도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함.

(설비투자 감세)

- 기계 및 생산라인 투자액을 전년대비 일정기준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감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
 - 생산설비인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 없이 적용할 방침이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
- 현재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우대 세제로는 <그린 투자 감세> 제도가 있음
 - 그린 투자 감세('11년 6월30일~'14년 3월31일) : 중소기업이 태양광 발전 설비 등 대상 설비를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가격의 30%를 특별상각 또는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자민당은 에너지 절약 설비 이외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감세를 적용하여 일본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

(고용촉진을 위한 감세)

- 급여를 인상한 경우 증가분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상한선은 법인세의 20%)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현행 <고용촉진세제>는 고용자수를 늘릴 때 감세가 가능
- 종업원 1명당 평균급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인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업 업무활동 촉진을 위한 감세)

-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600만엔이하의 업무활동비에 대해서는 90%를 비용(손실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업무활동비 상한선 600만엔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
 - 일본 기업의 업무활동비는 '92년 6.2조엔의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 2.9조엔까지 감소함
 - 이에 따라 업무활동 수요 환기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

나. 아시아거점화 입지추진사업

□ 사업 내용

- 글로벌기업에 의한 통괄거점 또는 연구개발거점 등 고부가가치 거점의 일본 국내 입지를 지원하는 사업
 - ☞ (통괄거점) 2개 이상의 국가에 피 통괄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방침 결정, 조정관련 업무를 통괄하는 거점
- 동 유형에 해당되는 고부가가치거점의 일본내 입지에 대해 시설공사비, 설비도입비, 시설임대료 등 지원
 - 이를 통해 일본의 강점에 적합한 부가가치 기능의 유치·집적을 촉진, 아시아의 중핵거점으로서 일본의 부활을 도모

□ 추진 체계

- 경제산업성이 기본방침 수립, JETRO가 실행 주체가 되어 안전 승인 등 추진
 - JETRO 담당조직 : 아시아거점화 입지추진사업보조금사무국(JETRO 對 日투자부)

·TEL : 8103-3582-5234, FAX : 81-3-3505-1990

·E-mail : invest-japan@jetrp.go.jp

- JETRO에서 매년 공모를 실시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안건 결정
- '12년의 경우 8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공모, '13년 2월 6일 최종 발표

<2012년 승인 안건>

업체명	국적(본사)	거점유형	분야
GE저팬	미국	R&D	에너지(차세대발전설비), 헬스케어(의료용정보시스템)등
존슨앤존슨	미국	R&D	의료기기
테네코저팬	미국	R&D	자동차부품(배기가스정화장치 등)
휠시아저팬	프랑스	R&D	자동차부품(시트)

* 자료원 : JETRO

다. U턴기업 지원 시책

지원 시책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U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하는 등 지자체보조금지원제도를 통해 해외로부터 국내로의 U턴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

일본기업의 U턴 움직임

1) 2005년 전후의 1차 U턴 움직임

- 주로 전기전자분야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가 주된 목적이었음
- 전기전자분야 주요 기업들이 일본 내 공장을 새로 증설하는 등 대형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 생산거점을 국내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임
- * 일본 국내에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주요 제조업)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일본경제신문 '05.10.22일자)
- 일본 가전업계는 한때 비용이 저렴한 해외에서의 생산을 확대해 왔으나 한국, 대만 등 아시아 메이커의 추격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 수익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으로 전환함.
- 이에따라 디지털가전, 반도체 등의 첨단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본 주요 전자업체의 국내 U턴(해외현지생산 →일본 국내생산으로 거점 전환) 움직임은 강해짐

<캐논 사례>

- 캐논은 프린터, 복사기에 사용되는 토너카트리지를, 잉크 생산공장을 오이타시에 신규로 건설함(총 투자액 약 800억엔). 또한 도시바와 공동으로 각각 9백억엔을 투자, 세대 평판 대화면 TV용 패널인 SED* 양산공장을 효고현 다이시쵸에 건설하였음.
 - 캐논이 아시아보다도 비용이 높은 일본국내에서 대형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기술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해외에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블랙박스화를 추진한다는 의도가 있음
- *SED(Surface-conduction Electron-Emitter Display,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 디스플레이)

- 블랙박스화의 선두격인 액정TV 세계 최대 메이커 샤프사는 2004년 1월에 약 1,500억엔을 투자, 당시 세계 최대의 액정TV생산거점이 되는 가메야마공장(미에현 가메야마시)을 가동시킴
- 샤프사는 '06년 하반기에 새로이 약 1,500억엔을 신규 투자하여 제2공장을 가동. 수익의 원천이 되는 액정사업에 대해서는 부품자재 메이커나 필요한 기술자가 가까이 있는 국내에 집중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막고 경쟁상대인 한국, 대만메이커에 대항한다는 방침 채택
- 이같은 U턴 움직임은 타사로도 확산됨. 마츠시타전기산업은 '04년 4월에 오사카부 이바라기시에 가동중인 PDP공장에 이어 '05년 하반기중 효고현 아мага사키시에 PDP 신공장을 가동시킴
- 도시바는 오키아이치시 공장(미에현)에 약 2,700억엔을 투자, 반도체 생산 신공장을 '07년에 가동시킴.
- 일본기업의 국내U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세수, 고용 등의 경제 효과에 기대를 거는 지자체의 의욕적인 기업 유치활동도 한 몫하고 있음. 샤프의 가메야마공장을 유치한 미에현과 가메야마시는 합계 135억엔의 보조금을 교부. 이같은 기업유치제도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일본 기업의 U턴을 가속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 가전메이커의 일본 국내 U턴 현황('06~'07년)>

메이커명	거점	생산품목	총투자액	가동시기
캐논	오이타시	프린터용 카트리지	약800억엔 (예상)	2007년
도시바, 캐논	효고현 타이시쵸	SED	약 1,800억엔	2007년
마츠시타 전기산업	오사카부 이바라기시 효고현 아мага사키시	PDP PDP	약 600억엔 약950억엔	2006년4월
샤프	미에현 가메야마시	액정패널	약1,500억엔	2007년 하반기
	미에현가메야마시	액정패널	약1,500억엔	2006년 하반기

* 자료원 : 닛케이신문(2005.10.22)

2) 최근의 U턴 움직임

○ 최근 일본 U턴기업의 특징

- 일본은 최근 엔고 및 서플라이체인 분산 등으로 해외진출이 급증하면서 산업공동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U턴하는 기업이 많은 편으로 이들 U턴기업은 중국의 고임금 및 낮은 납기 문제로 인해 중국에서의 생산 일부를 일본 국내 공장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대부분 중국, 아시아 시장용 제품 생산은 중국에 거점을 그대로 두고 일본 국내용 제품만 일본으로 생산이관하는 형태
- 특히 국내공장으로 생산을 이관하는 제품은 주문형 생산 제품이거나 고급형으로 ‘Made in J메무’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한 제품임.
- 또한 업종으로는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IT,전자관련 분야가 많은 것이 특징

○ 최근 일본기업의 U턴 사유

<해외 일본 현지법인의 지역별 철수 수>

(단위 : 개사)

연도	'05	'06	'07	'08	'09	'10
기업수	561	470	449	472	659	608
북미	137	127	94	81	140	113
유럽	122	57	85	57	90	106
아시아	241	231	235	303	371	339
- 중국	109	123	82	151	200	181
- 아세안	71	52	69	75	90	68
- NIES	50	45	77	65	68	74

* 자료원 : 경제산업성

① 인건비 상승

- 일본 제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가장 큰 사유는 바로 ‘인건비’ 문제

- 지금까지 신흥국 인건비가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일본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도모
- 그러나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현지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상승하여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매력이 없어지고 있음. 특히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평균임금상승률은 2010년 13.5%, 2011년 14.3%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2006~2011년간 2배가 됨
 -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해외기업이 느끼는 국가리스크로 중국의 경우 ‘정치 상황’, ‘인건비 상승’을 꼽음(2012년 모노즈쿠리백서)
- 이로 인해 과거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작업을 위한 거점으로 진출하였으나 현재는 현지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 설립이 많아지고 있음.
- 다만,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 분업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중국보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생산거점 구축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음.

<중국의 평균 임금(전년대비) 추이(%)>

연도	전체 (A)+(B)	국유기업 (A)	기타(B)		
			종합	홍콩, 마카오, 대만 계열	외자계
2006	14.6	14.4	14.4	10.3	12.4
2007	18.5	20.2	15.6	14.8	11.5
2008	16.9	16.0	17.6	15.4	15.7
2009	11.6	12.7	9.8	7.7	8.3
2010	13.3	12.4	14.2	13.9	12.5
2011	14.4	13.4	15.4	N.A	N.A

* 자료원 : JETRO

② 납기 문제

- 국내외 회귀하는 일본기업들 중 전기전자 메이커가 많은 것이 특징
- 실질적으로 IT분야의 빠른 기술혁신 속도로 인해 납기 단축이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이 큰 요인
 - 특히 컴퓨터 등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새로워지고 있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기존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음.
- 물리적 거리로 인해 우선 수송시간이 길어지며 이를 막기 위해 항공 운송을 선택할 경우 비용이 높아져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납기 문제가 발생
- 또한 중국공장 생산 자체의 납기가 느린 것도 주요 문제로 대두.
 - 중국 공장에서 생산했을 경우 납기는 2주가 걸리고 있음. 이에 따라 당월 납품 받고 싶은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월의 중순까지인 상황.
 - 이는 그만큼 당월 납품받고 싶은 고객의 주문을 한 달 중 15일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기회 손실로 이어짐.
 - 이를 피하기 위해 재고를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면 이는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됨.
 - 납기가 2주 걸리는 중국생산 제품의 경우 약 1개월분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PRESIDENT 2012년2월13일호)
- 하지만 일본 공장에서 생산할시 납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2주에서 5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당월 필요한 주문을 25일까지 수주할 수 있어 채산성 확대, 리스크 절감이 가능

③ 중국에서의 Made in Japan 제품의 재평가

- 일본 최대의 가전 양판점인 '야마다전기'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 고객이 방문하여 고급 가전을 사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인 고객들은 'Made in Japan'이라고 적힌 제품이 고품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선물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함. (경제산업성 「2011년 모노즈쿠리 백서」)
- 또한 전기전자 메이커 일부도 중국에서 철수하여 일부를 일본생산으로 바꾸는 경우도 나오고 있음.
 - 후지쯔는 2013년도 일본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PC를 2011년도에 비해 3배 많은 220만대로 늘릴 방침
 -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일본 국내공장의 로봇생산체제 도입으로 이를 통해 생산 증강 및 코스트 삭감이 가능해짐
 - 일본 HP 또한 2011년 8월부터 데스크탑형 PC를 취급하는 도쿄의 아키시마 사업소에서 과거 중국에서 생산하던 노트북 제품도 함께 생산

3) 주요 U턴 기업 사례

가) NEC 레노보 홀딩스

* 일본 PC메이커 1위의 NEC와 중국 최대의 PC메이커인 레노보의 합작회사로, 2011년 7월 1일 발족

- 진출지역 : 중국
- 복귀지역 : 일본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山形縣 米澤市)

- 업종 : 전기전자
- 투자액 : 이미 NEC 브랜드로 PC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요네자와 공장에 생산을 이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는 불명
- 주요 내용
 - 납기일의 대폭 단축, 일본 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중국생산을 일본공장 생산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
 - 생산 이관을 검토하는 제품은 PC에 탑재하는 기능 및 소프트웨어를 고객 주문에 따라 조정하는 커스터마이징 제품
 - 현재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가 약 10일 정도 걸리고 있으나 국내공장으로 생산을 이관하면 최대 3일 정도로 단축되어 주문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해짐
 - 또한 수송 시 충격 등으로 인한 초기 불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메리트도 기대되고 있음(Sankei Biz, '12.3.21)

나) 일본 HP

- 진출지역 : 중국
- 복귀지역 : 도쿄도 아키시마시(東京都 昭島市)
- 업종 : 전기전자
- 투자액 : 일본 HP의 데스크탑 PC제조 국내거점으로 생산의 일부를 이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액 불명
- 주요 내용
 - 일부 노트북 생산 거점을 일본으로 옮겨, 도쿄도 아키시마시 공장에서 2011년 8월부터 생산하기 시작
 - 생산을 일본 국내 공장으로 이관한 것은 법인 전용의 15.6형 「HP ProBook 6560 b」 모델로 고급형 모델

- 일본 국내생산으로 납기가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해외에서의 수송 시 진동 및 충격 등으로 인한 초기 불량률 삭감, 일본인 직원에 의한 엄격한 공정관리와 품질 검사, 현장에의 즉시 피드백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PC Watch, 2011.6.17)

다) 후지쯔

- 진출지역 : 불명
- 복귀지역 : 시마네현 이즈모시(島根縣 出雲市), 및 후쿠시마현 다테시(福島縣 伊達市)
- 업종 : 전기전자
- 투자액 : 불명
- 주요 내용
 - 동사의 PC 국내 제조 거점인 시마네 후지쯔(시마네현) 및 후지쯔 아이소텍(후쿠시마현)에서 제조한 PC를 '이즈모 모델', '다테 모델'이라는 생산지역 명칭을 붙여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
 - 후지쯔는 2013년에 연간 1,0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음. 2009년도 실적이 563만대, 2010년도가 542만대인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의욕적인 목표임.
 - 이를 통해 후지쯔는 자사 PC의 고품질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임 (MY NAVI NEWS, 2012.9.21호)

라) 후지 제록스

- 진출지역 : 중국
- 복귀지역 : 니가타현 카시와자키시(新潟縣 柏崎市)

- 업종 : 전기
- 주요 내용
 - 상업용 고속 디지털 인쇄기의 생산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관
 - 중국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아예 치밀한 설계변경 및 공정의 개량을 진행시키기 쉬운 일본국내에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 다만, 중국에서는 출하 대수가 많은 일반제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일본과 중국 생산거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눌 예정
 - 일본 국내 생산으로 이관할 기종은 제품 한 대당 가격이 천만엔 수준으로 카탈로그, 포스터 등을 분당 약 100매의 스피드로 인쇄할 수 있는 고기능 모델임
 - 수요처의 주문에 맞춘 사양으로 바꾸어 출하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 국내 생산이 효율적이라는 이점이 있음. (일본경제신문, '12.4.25)

마) FDK

- 진출지역 : 중국
- 복귀지역 : 야마구치현 산요 오노다시(山口縣 山陽小野田市)
- 업종 : 전기 기기
- 투자액 : 약 14억 1100만엔
- 고용 창출효과 : 일본 국내 신공장에서 2013년도까지 211명의 인원 배치를 계획 중
- 주요내용
 - 전기·전자 부품 메이커인 FDK가 변전기, 인덕터 등 코일계 전자 부품에 활용되는 페라이트를 개발 및 제조하는 신공장을 2012년 7월 5일 완공

- 설비 투자액은 약 14억 1100만엔으로 페라이트 제품의 생산 능력은 2013년도에 140톤으로 예상
- 동사는 2004년에 일본 야마구치현 산요 공장에서 페라이트의 생산을 중지하고 중국 난징공장으로 생산을 이관했었으나 일본 국내에서의 페라이트 수요 확대를 전망하고 다시 국내공장으로 생산을 이관함
- 또한 최근 환경, 에너지 절약 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 및 축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효율 전원, 전자 부품의 수요가 증가해 이관함 (우베일보, 2012.7.6)

4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평가

- 일본정부는 경제 재생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인해 2013년 도 실질 GDP 2% 상승, 60만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민간경제기관에서도 2013년 GDP성장률은 2% 수준을 달성,디플레이션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가 많음.
 - 정부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0.8% 높아지는 효과로 금년도 GDP성장률은 2%를 웃돌 가능성 있음(무라시마 키이치 시티그룹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 경제성장률이 1% 이상 높아지는 효과로 금년 경제성장률 2% 실현 가능할 것 (유모토 켄지 일본총합연구소 부이사장)
 - 일본은행에 일정기간 물가목표 달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유효할 것임 (쿠마가이 미츠마루 다이와총연 수석 이코노미스트)
- 다만, 재정 및 금융 확장정책은 장기간 지속하기가 어려운데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음
 - 금융완화 방식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음(야마다 히사시 일본총연 조사 부장)
 - 재정책장으로 경기회복이 되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이나 재정책장정책이 실질적으로 경기자극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지는 의문(쿠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5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세계시장에서의 한-일 경쟁 심화

- 일본의 주요 수출분야의 '12년도 하반기('12년10월~'13년3월) 상정 환율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
 - 자동차가 달러당 78.97엔, 전기전자가 78.14엔 (일본은행발표 '12.12월)
- 이에 따라 최근 엔화약세 흐름은 일본 수출기업의 이익 증가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자동차분야가 환율 민감도가 높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업종으로 분석되고 있음.
- * 달러당 86엔, 유로당 114엔 수준일 경우 도요타의 연간 영업이익의 증가액은 3,500억엔, 혼다 1,050억엔, 닛산 1,200억엔으로 각 회사 '12년도 영업이익의 전망액의 20-60%에 상당하는 금액

<일본 전자 및 자동차 업종의 상정 환율과 환율민감도>

업종	기업명	상정 환율 (엔/달러)	환율민감도 (억엔)
전자전기	히타치제작소	79	42
	도시바	78	미산출
	소니	80	영향없음
	파나소닉	79	25
	캐논	78	25
	니콘	80	2
자동차	도요타자동차	79	350
	닛산자동차	79.7	200
	혼다	80	160
	스즈키	77	50
	마츠다	80	35

* 주 : 환율민감도는 달러당 1엔 상승시(약세) 영업이익증가금액

* 자료원 : 라쿠텐증권경제연구소

- 반면, 한국원화는 강세흐름을 보이면서 세계시장에서 전기전자 및 자동차분야에서의 한일간 경쟁이 더욱 심화
 - * 최근 3개월간 원화가치는 엔화대비 13% 내외 상승 ('11.11-'13.2)

□ 경기회복으로 인한 일본 소비시장 활성화 기대

- '12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일본 경기가 금년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12년 7월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경기현황판단지수는 11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 가계동향지수, 기업동향지수, 고용지수 모두 확대 추세
 - *

<경기판단지수 추이>

DI	'12.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1월	2월	증감폭 (전월비)
총 지수	44.2	43.6	41.2	39.0	40.0	45.8	49.5	53.2	3.7
가계동향	42.8	42.1	40.2	38.4	39.2	45.5	48.3	51.7	3.4
기업동향	44.8	44.0	40.0	38.3	40.6	45.6	50.2	55.0	4.8
고용동향	52.1	52.5	50.8	44.3	44.5	48.5	55.3	58.6	3.3

* 주 : DI(Diffusion Index, 경기판단지수) 지수 50이상은 경기확장, 이하는 경기축소 국면을 의미
 * 자료원 : 일본 내각부

- 향후 경기 판단지수도 12월에는 전월대비 9.1포인트 상승한 51.0포인트로 경기확장을 의미하는 50을 넘어섰음.

<향후 경기판단지수 추이>

DI	'12.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1월	2월	증감폭 (전월비)
총 지수	44.9	43.6	43.5	41.7	41.9	51.0	56.5	57.7	1.2
가계동향	43.9	42.6	44.1	41.9	42.0	50.2	55.4	57.0	1.6
기업동향	45.8	45.0	41.3	40.5	41.9	52.8	58.6	59.1	0.5
고용동향	49.4	47.6	44.9	43.2	41.2	52.8	58.9	59.3	0.4

* 자료원 : 일본 내각

-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 및 아베정권의 경제활성화정책으로 인해 일본 소비 활동 또한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음.
- 일본 내각부의 소비동향조사 결과 '12년 11월이후 소비자태도지수는 개선 추세
- * 소비자태도지수 변동폭(전월대비) : '12.11)△0.3, '12.12)△0.2, '13.1)4.1, '13.2)1.0
- 이러한 일본의 경기회복 흐름은 일본 소비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우리진출기업 및 일본 내수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작성
자
◆ 도쿄무역관 이 아 영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배창헌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03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